

SMART CITY

스마트 에너지 도시

일본 경제를 이끄는 도시로서 여러가지 기능이 몰려있는 도쿄. 한 곳에 집적된 메리트를 살려 건물 간에 에너지 교환을 하거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새롭게 활용을 하는 등 스마트 에너지 도시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COMMENT >> MIKI MURAKI

무라키 미키 지바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교수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광역 도시계획, 저탄소형 도시 만들기를 전문으로하며 에너지 면에서 도시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제언을 하고 있다. 박사(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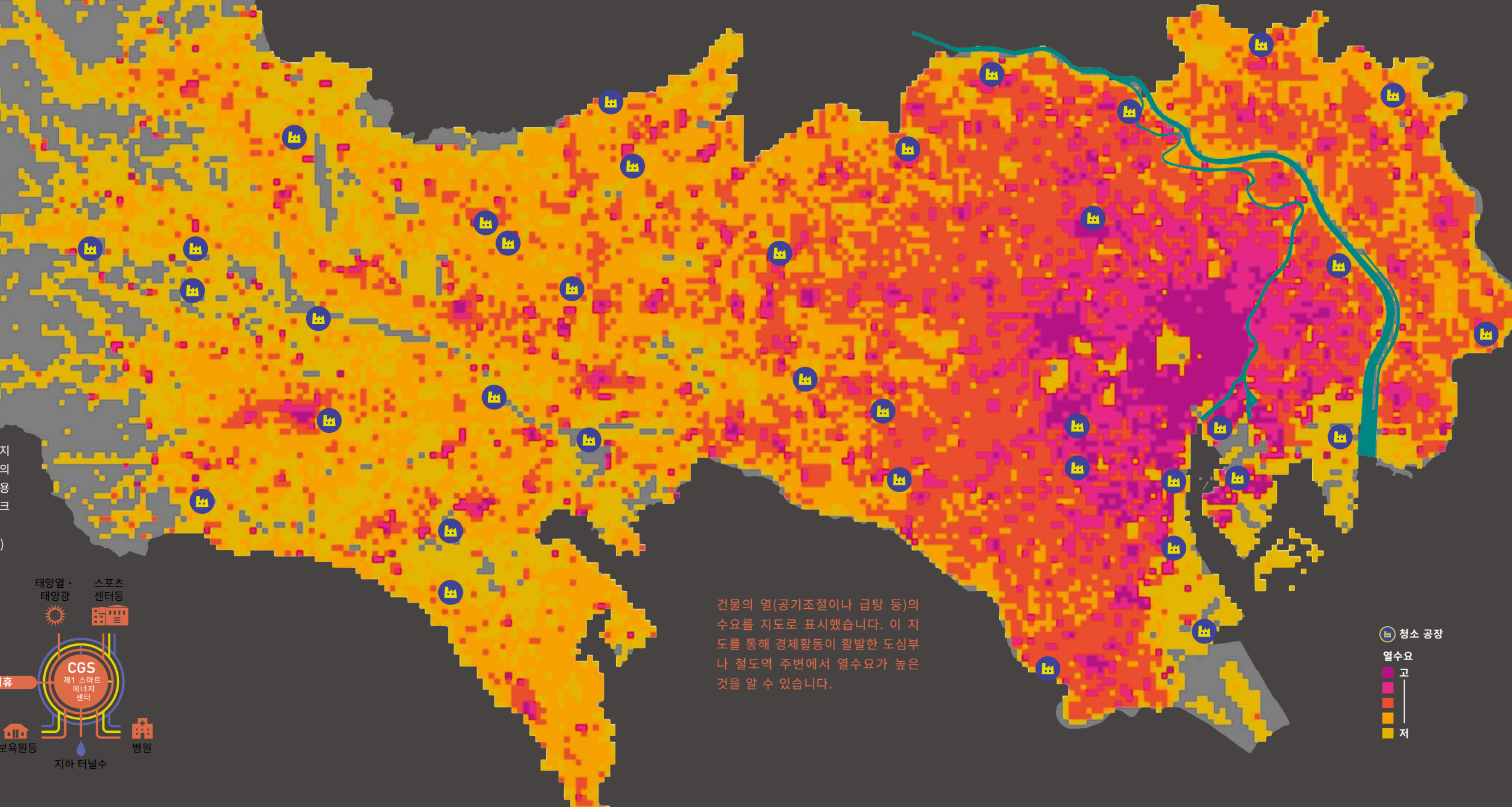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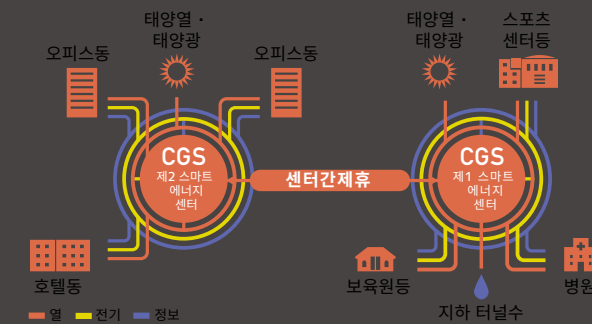
도쿄이기에 가능한 환경과 경제의 양립

세계 어디에도 도쿄만큼 도시의 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은 없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집적되어 있고 개발도 활발한 도쿄가 도시 만들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저탄소화에 임하면 경제면 뿐만 아니라 환경면에서도, 세계의 도시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 때 민간기업의 메리트도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업은 그 스테이터스로서 저탄소형의 부동산에 입주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도쿄의 도심부나 그 이외의 지역도 상업이나 문화, 호텔 등 여러가지 용도를 집적시켜, 에너지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미이용 에너지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영리한 에너지의 이용으로 도시로서의 가치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세계에서 주목 받는 도시가 될 겁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지역 만들기

오피스나 상업 시설, 호텔, 병원 등 에너지 이용의 피크타임이 서로 다른 시설들 간의 에너지의 상호 이용이나 태양광등의 미이용 에너지의 활용 등 스마트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나토구 다마치 역 동쪽출입구 기타지구)



건물의 열(공기조절이나 급탕 등)의 수요를 지도로 표시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 경제활동이 활발한 도심부나 철도역 주변에서 열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 공장
열수요
고
—
저